

<서평>

As the Romans Did:
A Sourcebook in Roman Social History
(Jo-Ann Shelton, 2nd ed.,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조재천*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사회학자들이 특정 사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미리 구성된 질문을 던지면서 면담을 한다. 지나간 시대의 사회를 연구하고자 할 때 이미 죽고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인터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과거 사람들이 남겼던 기록물을 마치 인터뷰인 양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천년 전 지중해 연안 로마 사회를 그려내기 위해 그 시대에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된 각종 장르의 문헌은 물론 비문, 동전, 그릇 등에 글이나 그림으로 남겨진 기록을 골라서 주제별로 묶어놓은 책이 바로 이 책, *As the Romans Did*(가제: 신약시대의 로마 사회사)이다. 본고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신약성서와 기독교 기원 연구에 있어서 이 책이 어떤 유용성을 갖는지, 이 책의 특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2. 책의 구성

이 책은 표지와 목차, 서문 등을 포함해서 15쪽, 본문 483쪽, 지도와 부록

* 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고대 기독교와 유대교(Christianity and Judaism in Antiquity)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조교수. jcho@ttgu.ac.kr.

26쪽, 참고문헌 목록 12쪽, 그리고 색인 15쪽으로 이루어졌다. 본문은 모두 15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로마 사회의 구조, 가족들, 결혼, 가옥과 도시생활, 가정과 개인생활, 교육, 직업, 노예, 해방노예, 정부와 정치, 로마 군대, 속주들, 로마 사회의 여성, 오락과 여흥, 종교와 철학. 각 장의 분량은 대부분 20-30페이지 정도이다. 단, 정부와 정치, 오락과 여흥, 그리고 종교와 철학을 다룬 장들은 유난히 양이 많아서 각각 40페이지 이상을 차지한다.

‘서론’(Introduction)이라는 제목이 붙은 짧은 장도 하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의 이상이라는 주제하에 리비우스의 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1장부터 15장까지 각 장은 좀 더 한정된 범위의 주제를 다루는 중단락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테면, 1장 로마 사회의 구조(the Structure of Roman Society)에는 계급구조(Class Structure)와 후견제도(Patronage)라는 두 개의 중단락이 들어 있다. 중단락들 아래에는 다시 좀 더 세부적, 구체적 내용이 담긴 여러 개의 소단락들이 나온다. 소단락이야말로 이 책의 기본 구성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장의 첫 번째 중단락인 계급구조 아래에 귀족, 정의와 법의 의미, 차별적 형벌 부과라는 세 개의 소단락이 편성되어 있다. 하나의 중단락에, 적게는 세 개, 많게는 십수 개의 소단락들이 들어 있고, 각 소단락은 보통 한두 개의 고대 문헌 단편과 그 단편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텍스트에는 1부터 473번까지 일련 번호가 붙어 있다. 따라서 이 책에 실린 고대 문헌 단편은 모두 473개임을 알 수 있다.

이상 묘사한 구조를 예시하기 위해 책의 한 부분을 번역해 보겠다. “제2장 가족”에는 모두 열두 중단락이 있다: 아버지들, 어머니들, 혈연관계 외 가족, 형제와 자매, 가족 이루기, 출산조절, 출산을 장려함, 입양, 자녀 양육, 보호자들, 고아들, 사회복지. 이 중 자녀 양육에 관한 중단락에는 모두 여섯 개의 소단락들이 나온다: 부모에게 순종, 버릇없는 아이들, 아이들을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 것, 유모들, 몽학선생들, 그리고 고지식한 몽학선생들. 아래 번역한 ‘버릇없는 아이들’에 대한 소단락은 자녀 양육이라는 중단락 주제의 하나로 편성되어 있다(31-32쪽).

II. 가족(Families)

(…)

자녀 양육(RAISING CHILDREN)

(…)

버릇없는 아이들(Spoiled Brats)

로마인들은 가정에서 엄격하게 교육시킴으로써 어린이들이 커서

맞게 될 힘든 현실에 잘 준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 체벌도 용인했다. 이전 소단락 단편의 저자인 세네카는 그의 다른 수상록에서 버릇없는 아이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44. 소(少) 세네카(Seneca the Younger), 『분노에 관한 수상록』 2.21.1-6

어린이들이 바른 예절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 엄격한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어린이들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각자의 성품이 억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칭찬이 아이의 기분을 좋게 하고 자신감을 북돋우지만 과도한 칭찬은 무례하고 변덕스럽게 만든다. ... 그러므로 아이를 키울 때 중도를 견지해야 한다. 때로는 억제하고 때로는 자극해야 한다. ... 과자를 달라고 조르거나 불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좋은 행동이나 약속한 성취가 있을 때 상으로 주어라. 만약 또래 아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울해하거나 화를 내게 하지 말라. ... 승리하거나 칭찬할 만한 일을 할 때 칭찬을 해야 한다. 단,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기쁨이 희열로 이어지고, 희열이 머리를 붓게 하고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씬을 허락해야 하지만,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서 부드럽고 쉬운 삶에 익숙해지게 해서는 안된다. ... 아이가 원하는 것 중 아무 것도 제지당하지 않는다든지, 아이가 울 때마다 엄마가 조바심을 내며 눈물을 닦아준다든지, 아이가 몽학선생에게 고집을 피워서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인생의 치열한 현실에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3. 특징점

이 책을 단지 자료집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셸튼(Jo-Ann Shelton)이 고대 문헌들 중 중요하고 흥미로운 부분들만 발췌해서 영어로 번역을 했고, 그 문헌이 473개나 되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다룬 로마인들의 글을 접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점 자체로도 하나의 큰 특징점이 된다. 왜냐하면 이 책에 모아진 문헌들은 고대 로마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음성이나 영상을 그대로 녹취할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고대 로마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겨진 자료는 매우 한정되어 있고, 그 중 대부분은 기록된 문헌, 그리고 일부는 비문이나 동전, 그릇, 그 밖에 고고학 발굴물 같은 비문헌 자료들이다.

1차 자료들을 직접 접하는 일이야말로 고대 로마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익하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서양고전학이 초, 중,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에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공교육 체제 안에서 서양고전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곳으로는 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 전공 협동과정¹⁾이 유일하다. 1991년 석사과정이 설치되었고, 1994년부터는 박사과정도 운영하고 있다.²⁾ 이 과정의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서양고전철학과 문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저변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몇몇 대학의 연구자들에 의해 고전 그리스와 라틴 문헌들이 번역되고 있고,³⁾ 정암학당이라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플라톤 전집이 번역 중에 있다.³⁾ 다만 번역에 대한 비평적 연구나 대중적인 에세이들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관심 있는 독자들이 로마인들의 언어 그대로 읽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이 요구된다. 소수라 하더라도 고대 로마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잘 배워서 그것으로 기록된 글을 제대로 이해한 다음,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현대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고답적인 학문의 세계를 대중에게 소개하고 접근성을 높여주는 일 또한 학자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셸튼 자신도 그런 목적에서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이 책은 로마 사회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대 세계에 관한 1차적인 자료들을 접하도록 할 목적으로 쓰였다”(서문 223쪽).

셸튼의 번역에 대해서 한 서평자는 “철저하고 풍성하다”(comprehensive and illustrative)라고 평가했다.⁴⁾ 비판적으로 보자면, 번역이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다고 할까. 라틴어나 그리스어 원문이 담긴 파피루스 등 고대 문헌 자료들은 보존상태가 천차만별이다. 게다가 그런 자료들이 기록된 당시의 사정과 기록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단 하나의 명확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흔치 않다. 불완전하고, 모호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원문이 깨끗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번역되었다면, 오히려 오역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책의 주요 독자, 즉 라틴어와 그리스어 비평본에

1) <http://classics.snu.ac.kr/>.

2) 현재 세네카, 베르길리우스, 오비디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의 주요 저술이 우리말로 번역, 출판되었다.

3) <http://www.jungam.or.kr/>.

4) Lisa Auanger, “Jo-Ann Shelton, *As the Romans Did: Sourcebook in Roman Social History*. 2n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 xxv, 483. ISBN 0-19-508973-1. \$45.00 (hb). ISBN 0-19-508974-X. \$27.95 (pb).”, *Bryn Mawr Classical Review* 1998. 11. 04., <http://bmcr.brynmawr.edu/1998/1998-11-04.html> (2017. 7. 15.).

접근하기 어려운 학생들과 대중을 위해서는 영어번역 그 자체가 완전하고 명확한 의미를 전달해야만 최대의 효용을 지닐 것이다. 번역에 대한 이러한 비평들을 향후 우리말 번역 작업에 있어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원문과의 대조, 점검을 통해 오역의 여지를 줄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가독성을 고려해서 우리말다운 정확하고 쉬운 글이 되게 해야 한다.

이처럼 고대 문헌들과 비문헌 자료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현대어로 번역해서 제공한다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1차 문헌만의 모음이라면 이 책의 효용은 제한적일 것이다. 1차 문헌에 담긴 로마인들의 목소리들이 어떤 정황과 배경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좀 더 큰 그림과 맥락을 짚어 줄 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두 번째 특장점이다.

앞서 예문에서 보았듯이 셸튼은 소단락마다 각 고대 문헌 단편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간략한 해설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소단락들과 본문들을 아우르는, 보다 상위의 개념에 대해서도 일종의 서론적 해설을 써 놓았다. 중단락의 첫 머리에, 그것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소단락들이 시작하기에 앞서, 그런 설명들이 나온다. 한 예로서 이 책 20쪽부터 나오는 중단락 ‘어머니들’에 관한 해설을 들 수 있다. 이 중단락에는 모두 다섯 개의 소단락들이 들어 있다: 이상적 어머니, 어머니와의 따뜻한 추억, 어머니의 부드러움, 어머니의 걱정, 어머니에게 배운망덕한 아들. 그런 주제들, 그리고 그 주제를 묘사하는 고대 문헌들을 하나씩 살피기에 앞서 셸튼은 다음과 같은 해설을 제공한다.

II. 가족(Families)

(...)

어머니들(MOTHERS)

아쉽게도 로마 사회 어머니들과 그 자녀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 어머니들에 대한 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대부분 이상적인 로마적 어머니상(a Roman *matrona*)이다. 고상하고, 강하고, 희생적이며 자녀 교육에 헌신되어서 가문의 정치적 출세를 돕는 여성. 따뜻하고 진정한 모성애에 대해서는 거의 들을 수 없다. 로마 시대에 기록된 문헌 속에 드물게 묘사된 어머니들은 멀리서 우리를 받는 존경의 대상이다. 애뜻한 모성애에 대한 기록을 찾기 어려운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많은 어머니들이 젊은 나이에, 특히 출산 중에 죽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머니를 전혀 알지 못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퀸틸리아누스의 어린 아들들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길러졌다(Quintilian, *The Elements of Oratory*

6. Preface 6-11). 재혼, 삼혼이 드물지 않아서 아이들이 의붓어머니 아래에서 자라는 경우도 많았다.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자랐고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기 십상이었다.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손에서 키워지지 않았다. 특히 상류 가정에는 아이들의 일상적이고 물리적인 돌봄을 전담하는 고용된 하층민들, 즉 시종이나 노예들이 있었다. 자신들을 먹이고 씻기고 입혀주는 유모나 시종들에게 아이들은 어머니와 같은 친밀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고 로마인들이 어머니들을 극진히 사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머니와의 애뜻한 관계를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표현을 써서 그리기보다는 보편적 미덕을 동원해서 다소 틀에 박힌 듯 묘사했던 이유는 당시의 문예적 관습 때문이었을지 모른다.

이 책의 해설 전반에 드러나는 일관된 관점이라면 로마인들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특히 노예들이나 평민들의 삶의 모습에 큰 관심을 둔다는 사실이다. 서문에 표현된 것처럼,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고대 로마 세계에서 삶의 많은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얻게” 한다.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 대한 기존 해설서들이 정치 권력의 변동이나 황제, 원로원, 장군 등 지도층의 행적 위주의 내용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 책은 로마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모습을 고루 비추어 낸다. 이 책이 평민과 노예들의 삶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호적으로 묘사하는 반면, 상류층의 삶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셸튼의 관점은 다소 비판적, 풍자적이다.

해설의 내용과 아울러 셸튼의 문체나 표현에는 현대 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는 유머, 슬픔, 안타까움, 두려움 등 감정적 반응을 자극하는 내용과 표현들을 즐겨 사용한다. 이런 요소들이 엄밀한 학문적 기준으로 볼 때는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고대 로마 사회에 관심을 가진 대중 독자들에게는 흥미와 재미를 느끼면서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단점

앞서 언급한 *Bryn Mawr Classical Review*에 실렸던 서평에서 리사 앵거(L. Auanger)는 이 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첫째, 너무 로마 중심적이다. 비록 주전 1세기가 끝나갈 무렵 정치, 군사적으로 하나의 제국을 이루긴 했지만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탈리아

아 반도의 로마라는 한 도시와 이탈리아 반도 바깥의 광대한 다른 지역까지 하나의 통일된 사회상, 문화가 통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우리에게 남아 있는 문헌자료의 출처, 그리고 그 자료들에서 묘사되는 사회가 위치하던 지역이 로마 제국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에 전적으로 의존한 그림은 실제 고대 지중해 세계의 모습을 왜곡시킬 여지가 있다. 특히, 그리스어 자료보다는 라틴어 자료에 치중되어 있다. 둘째, 쉘튼의 관점은 다소 진보적이고 평등주의적 사회관에 치우쳐 있어서 이것이 그녀의 자료 선택, 배열, 그리고 해설의 관점에도 반영되어 있다. 셋째, 일상의 삶의 모습에만 치중하다 보니 보다 제도적이고 공적인 측면들, 이를테면 법률, 칙령, 정치적 논쟁과 합의 과정 등에 대한 고려가 누락되어 있다.⁵⁾

이상의 비평에 더해서 한두 가지를 더 꼬집어 볼 수 있다. 먼저 인용된 473편의 1차 자료들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저자, 장르, 그리고 그 자료가 기록된 시기의 역사적 배경을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있고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 책 한 권만으로 수업이나 연구를 진행할 수는 없겠다. 로마 사회사에 대한 다른 개론서와 고대 저자들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참고문헌이 이 책과 아울러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쉘튼의 입장에 서서 변명을 하자면 현재의 내용과 분량만으로도 책이 다소 두꺼운데 여기에 그런 배경 정보까지 담는다면 독자의 범위가 아주 좁아질 것이다. 게다가 저자들과 각 저자들의 시대에 대한 역사적 정황, 그리고 개별 저술에 대한 기본 정보는 표준적인 참고서적들에서⁶⁾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5. 성서학자, 성서학도가 왜 고대 로마사회를 알아야 하는가?

저자인 쉘튼의 의도나 그녀 자신의 학문적 관심을 보더라도 이 책은 고대 로마사를 기술한 책이다. 신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며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까? 두 가지 면에서 이 책의 유용

5) Ibid.

6) 예를 들어, S. Hornblower, A. Spawforth, and E. Eidinow, eds., *Oxford Classical Dictionary*, 4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Hubert Cancik, Helmuth Schneider, and Manfred Landfester, *Brill's New Pauly: Encyclopedia of the Ancient World*, 22 vols. (Leiden: Brill, 2011). 특히 우리말로 번역된 책으로 D. Rathbone, ed., 『500장의 일러스트로 만나는 그리스, 로마 문명』, 유재원, 김운용 역 (제주: 케이론, 2011)에는 로마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그림, 도자기, 동전, 석상, 건축물 등 여러 시각자료들이 담겨 있다.

성을 말할 수 있다.

첫째, 1차 자료의 가치이다. 대학의 기독교학과 혹은 신학대학원에서 성경을 본격적으로 배울 때 신약개론 혹은 구약개론 등 과목을 수강하는데 그 과목의 일부분으로 성경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다루곤 한다. 하지만 신약의 배경 혹은 구약의 배경을 다룰 때 1차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면서 입체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다. 강사의 관점에 따라 사실을 선택적, 개괄적으로 나열하거나 단편적인 일화를 소개하는 정도에 머무른다. 신구약 배경사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과목에서도 퍼거슨(E. Ferguson)의 『초대교회 배경사』처럼 1차 자료가 간헐적으로 섞인 해설서가 주로 활용된다.⁷⁾ 이 책 *As the Romans Did*처럼 1차 자료를 다량, 다양하게 소개하는 교과서는 극히 드물다. 마치 성경 본문을 충분히 곱씹지 않고 주석이나 설교집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성경시대의 배경이 되는 로마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로마 사회의 일상적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1차 자료를 충분히 접할 필요가 있다. 1차 자료를 읽으면 상상력이 자극을 받고 독자 스스로 원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이 함양된다. 각자가 지닌 이해력과 해석의 관점에 따라 로마 사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보다 생생하고 풍성하게 성경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유익도 얻게 된다.

이 책이 유익한 두 번째 이유는 다루는 내용이 고대 로마 사회라는 점이다. 로마라고는 하지만 주전 2세기 이후로 그리스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 전역이 로마 공화국, 그리고 후에는 로마 제국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로마 사회는 곧 고대 서양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이 책에서 다루어진 1차 자료들의 저술 시기는 로마 역사 전체에 걸쳐 있다. 따라서 단지 신약성경의 기록 시기만이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 수세기 동안의 이어지는 문화적, 사회적 분위기(milieux)를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로마 사회사가 우리나라의 성서학 연구와 교육에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나라 모든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서양고전학의 토대가 거의 전무하다.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성서학의 경우 성경 배경의 두 축인 유대적 배경과 그레코-로마적 배경 중에 전자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구약과 신약의 신학적 연속성을 강조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단지 그레코-로마 사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대 로마 사회와 성경과의 연관성에 대해 이해와 관심이 낮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에도 이 책이 기여

7) E. Ferguson, 『초대교회 배경사』, 제3판, 엄성욱 역 (서울: 은성, 2005).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에 언급된 내용과 교차되는 지점들을 자주 발견한다. 예를 들어 입양에 관한 부분은 ‘양자’(롬 8:15)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몽학선생’(갈 3:24-25; 고전 4:15)이 누구이며 주인의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 책이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책에서 유난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 로마의 종교와 철학은 신약성경 시대의 사상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직접적인 자료이다. 그 밖에 군대, 스포츠, 가족, 후견인, 노예 제도, 직업, 교육, 여성의 지위와 역할 등 많은 주제들이 성경의 의미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주제어> (Keywords)

로마 사회사, 1차 자료, 비문헌자료, 로마의 종교, 서양고전학.

Roman social history, primary material, non-literary material, Roman religion, classical studies.

(투고 일자: 2017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17년 9월 4일, 게재 확정 일자: 2017년 10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Ferguson, E., 『초대교회 배경사』, 제3판, 엄성옥 역, 서울: 은성, 2005.
- Rathbone, D., ed., 『500장의 일러스트로 만나는 그리스, 로마 문명』, 유재원, 김운용 역, 제주: 케이론, 2011.
- Auanger, Lisa, “Jo-Ann Shelton, *As the Romans Did: Sourcebook in Roman Social History*. 2n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 xxv, 483. ISBN 0-19-508973-1. \$45.00 (hb). ISBN 0-19-508974-X. \$27.95 (pb).”, *Bryn Mawr Classical Review* 1998. 11. 04., <http://bmcr.brynmawr.edu/1998/1998-11-04.html> (2017. 7. 15.).
- Cancik, Hubert, Schneider, Helmuth, and Landfester, Manfred, *Brill's New Pauly: Encyclopedia of the Ancient World*, 22 vols., Leiden: Brill, 2011.
- Hornblower, S., Spawforth, A., and Eidinow, E., eds., *Oxford Classical Dictionary*, 4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Abstract>

**Book Review – *As the Romans Did:
A Sourcebook in Roman Social History***

(Jo-Ann Shelton, 2nd ed.,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Jaecheon Cho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Jo-Ann Shelton's *As the Romans Did* is a collection of primary evidence to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lives of ordinary Roman people. It contains 473 translations of selections from texts, papyri, and inscriptions concerning fifteen broad general areas of Roman life and society. Chapters are about the structure of Roman society, families, marriage, housing and city life, domestic and personal concerns, education, occupations, slaves, freedmen and freedwomen, government and politics, Roman army, the provinces, women in Roman society, leisure and entertainment, and religion and philosophy. Each chapter consists of translations and general commentary. Shelton's selection and treatment of the primary material is tailored for students who do not necessarily have facilities for Greek and Latin texts. The breadth, albeit shallow, of primary texts is one of the major qualities of this book. Translation is clear and easily comprehensible, maybe overly so, but the target readers of this book would appreciate it. Shelton's commentary is generally interesting and brief, a quality both advantageous and disadvantageous. This book serves a wide readership including students of the Bible for the direct relevance of the subjects at hand to the historical milieu in which the Bible was written.